

주휴수당·퇴직급여 적용 확대,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☐ 7.9.(수) 중앙일보, “자영업자, 주휴수당·퇴직금 부담도 커진다”

2. 설명 내용

- ☐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,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 확대 등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

담당 부서	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과	책임자	과 장	한진선 (044-202-7991)
		담 당	사무관	김영수 (044-202-7543)
	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	책임자	과 장	이준호 (044-202-7554)
		담 당	사무관	신창모 (044-202-7557)